

정부는 상생적 노사관계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해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2.25.(수) 서울경제, “프랑스마저...‘노란봉투법, 기업 활동 불안정성 심화”

- “노란봉투법은 외국 기업들의 한국 내 활동이나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, 적어도 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활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다”면서 “또 법적 해석이 불분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개선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”고 덧붙였다.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노사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해나가고 있음
 - 외투기업 및 주한외국상의와도 「노조법 2·3조 개정 현장지원단」 등을 통해 수차례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
- 아울러 정부는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노동위원회 판정례 및 법원 판례,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「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」을 마련하였으며,
 - 해석지침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 활동을 뒷받침 해나갈 계획임
- 앞으로도 정부는 외투기업 등과의 소통을 계속하는 한편, 상생교섭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지방관서 전담팀을 통해 지역 내 주요 협·단체, 기업 대상 현장지도를 지속하여 상생적 노사관계를 지원해나갈 것임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서명석 (044-202-7611)
		담 당	서기관	유현경 (044-202-7609)
			서기관	정장석 (044-202-7615)

